투데이 칼럼

미일 군사 협력 강화와 한반도

정 복 규
논설위원

최근 미국을 공식 방문한 일본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국방,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선언했다.

한편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 강화에 관심이 증폭하고 있다. 미일 군사 협력 강화 문제가 과연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벌써부터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한편으로 북일 정상회담 성사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 같은 기시다 총리의 광폭 행보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을 놓고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일본 총리의 미국 공식 방문은 9년 만의 일이다. 이번에 미국을 공식 방문한 기시다 총리는 미국의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미일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국방과 안보 분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일본이 올해 육·해·공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를 신설하는 것에 맞춰 주일미군의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지휘 통제 구조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양국의 군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군대의 상호 운용성과 계획을 강화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방위 산업 정책 조정회의를 출범해 미사일을 공동 개발·생산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기도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호주와는 미사일 방어 체계 시스템 구축을, 영국과는 내년부터 3국 군사 훈련을 정례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총리는 "일본과 미국의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에서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 양국의 이 같은 군사 협력 강화는 중국 견제가 명분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은 중국 견제의 첨병으로 일본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은 평화헌법 하에서 수동적인 안보 정책에서 벗어나, 보통국가로 전환하는 동력을 얻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이런 행보가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더욱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한국은 과거의 역사적인 아픈 기억이 남아 있다. 일본이 외부로 군사적인 능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것이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미일의 협력 내에서 일본이 과거처럼 폭주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양국이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 이래 최대의 군사 협력 변화를 꾀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특히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면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올해 안에 열릴 미일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연합사처럼 미일이 공동의 사령부를 구성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군과 자위대가 갖고 있는 군사적인 능력을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해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미일 동맹 강화의 목적이 중국 견제인 만큼 동북아의 긴장이 한층 고조될 수도 있다. 중국은 "일본은 역사에서 진지하게 교훈을 얻고 군사 안보 분야에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군사동맹인 오커스가 한국을 첨단 군사 기술 공동 개발 상대로 고려하고 있다는 미국 측 발표에, 우리 정부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한국이나 뉴질랜드 같은 국가들과의 협력도 논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또 한편으로, 북일 대화를 통해 한반도 주도권을 쥐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기회를 갖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부정적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위기 상황을 외교 성과로 타개하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국방 외교력이 국제무대에서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독자제언

청소년 온라인 도박,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

청소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도박이 스마트폰을 통해 전염병처럼 빠르게 번지고 있다. 온라인 게임 광고, SNS 등을 통해 쉽게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고, 또래 집단과 어울리기 위해 도박 사이트를 검색해보거나, 초대 링크를 받아 도박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된 도박은 통제력이 낮고, 충동적인 청소년들에게 '도박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도박에 빠지게 되면 음주, 흡연 등과 같은 비행 행동과 이어질 수 있고,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학교폭력, 마약 배달 등 2차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박 문제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다. 청소년들이 무의식 중에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100원, 1,000원 등 소액으로 하는 놀이도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하며,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에서도 자녀에 이상행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도박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에게 도박의 위험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또한, 이미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는 '도박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의 자녀가 도박에 노출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대표적인 징후로는 친구들과의 돈거래가 잦아지는 것과 스포츠 경기 결과에 민감해진다. 또한, 자녀에게 사준 적 없는 고가의 옷, 시계 등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도박에 노출된 징후로 볼 수 있다.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제공하는 자가점검을 통해 위험 정도를 확인하고 상담(국번없이 1336) 및 전문 기관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청소년 도박,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주희고창경찰서 경무과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미국 거부권 행사로 부결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회원국 대표들이 팔레스타인의 회원국 가입 표결 투표를 하고 있다. 이 표결에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팔레스타인의 안보리 가입이 부결됐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 설

올드보이 여의도 귀환

제22대 총선에서는 '올드보이'(OB)들이 여의도 귀환을 알렸다. 전북 전주병에서 당선된 정동영(70) 전 통일부 장관은 화려하게 복귀했다. 특히 80% 가량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며 5선 고지에 올랐다.

그는 공천 과정에서 용퇴 압박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개인 경쟁력을 앞세워 당내 경선에서 현역 의원을 따돌리고 공천장을 따냈다. 추미애(66)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기 하남갑에 당선되면서 6선 고지를 밟게 됐다.

판사 출신으로 여성 최초 5선 의원, 제2대 민주당 대표 등을 지낸 추 전 장관은 '추다르크'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각을 세운 바 있다.

여권에서는 4선 출신 나경원(61) 국민의힘 전 의원이 귀환했다. '한강 벨트'의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 동작을에서 민주당 영입 인재인 류삼영 전 총경을 물리치고 승리를 따냈다.

5선에 오른 그는 4년 만에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선거 기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려 6차례나 이곳을 찾았다. 그러나 나 전 의원이 54% 이상을 득표하며 이 대표의 지원 사격을 무위에 그치게 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에 당선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헌정사상 지역구 최고령 당선인이 되면서 화려하게 귀환했다.

1942년생인 그는 만으로 81세다. 임기가 종료되는 2028년엔 85세가 된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 출신인 박 전 원장은 '정치 9단'이라는 별칭처럼 정치권과 방송 등에서 존재감을 드러내 왔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정치 신인'이던 민주당 의원에게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복귀하며 정치 재개를 엿봤다.

장수군 재활용품 분리배출

전북 장수군이 최근 '올바른 분리배출과 종량제 봉투 사용 홍보 캠페인'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종량제 봉투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했다.

읍·면 이장 회의를 통한 적정 분리배출 홍보 활동도 산서면을 마지막으로 홍보 일정을 마무리했다. 장수군은 향후 마을 단위 방문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장수군은 "청정고장, 깨끗한 장수 만들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분리배출 우수마을 포상 △무단투기 집중 단속 △분리배출 시설 확충 등 깨끗한 장수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갈수록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 캠페인이 절실하다. 자원 순환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분리배출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재활용품으로 만든 장바구니도 배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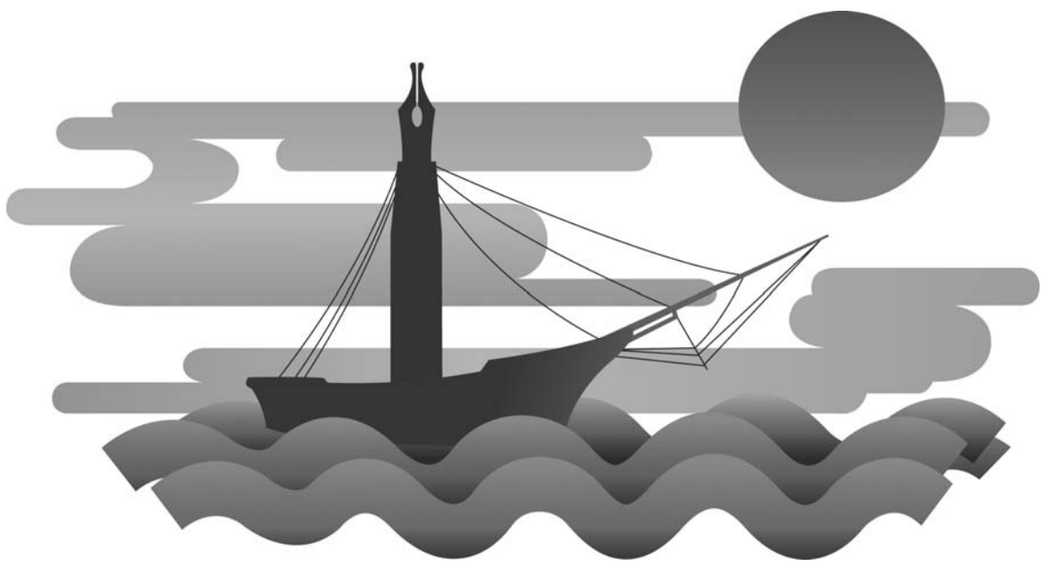
재활용품 수거 보상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재활용품 수집 유가보상제는 투명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 폐건전지, 종이 팩 등 재활용품을 품목별 단가에 따라 현물(종량제봉투)로 보상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단체와 연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것도 필요하다.

'재활용품 수거 유가보상 행사'를 열어 자라나는 미래 세대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순환 경제 실천이란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재활용품 수거 유가보상제'부터 실시하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